

News

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오른다...고금리 예적금·특판 주목

데일리안

시중은행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수신상품 금리 인상... 주요 은행 정기 예금 금리는 2%, 적금 금리는 3%대에 육박
신한은행, 정기 예적금 36개 상품 금리 0.4%p 인상... 우리은행, 18개 정기예금과 20개 정기적금 금리 0.1~0.3%p 인상... 나머지 은행들도 어느 폭까지 인상할지 고심 중

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코픽스 한달 새 0.14%포인트 상승

이코노미스트

코픽스, 한달 새 0.14%p 뛰어 1.69% ... 2019년 6월 이후 2년 반 만에 최고치...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연속 상승 중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시중은행들, 오늘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작년 12월 코픽스 금리 수준 반영 예정

2021년 가계대출 증가 중 전세대출 비중 41.2%로 늘어

조선비즈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71조 6,000억 원으로 나타나... 이 중 29조 5,000억원이 전세자금 대출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에도 전세대출 수효는 2조원 가까이 유지 중... 실수요 대출로 총량 관리에서 제외했고 작년에 전셋값이 크게 올라 증가세가 많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

KT·신한은행, 자본 맞교환 '9000억 디지털 헬멧'

중앙일보

KT와 신한은행, 약 9,000억원 규모의 헬멧 댕어... 각각 4,375억원씩 들어 상대방 자본 사들여...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장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KT보유 신한금융지주 지분율 2.1%, 신한은행 보유 KT 지분 5.48% 확보하게 되어... AI, 메타버스, NFT, 빅데이터, 로봇 등의 영역에서 23개 공동사업 진행하기로...

보험사, 대출 빚장 열었지만...돈 빌리기 쉽지 않네

아시아투데이

보험업계, 닫았던 대출 빚장 서서히 풀어... 삼성생명, 자체적으로 줄였던 대출한도를 다시 정상화하는 분위기... KB손보와 동양생명은 상황 지켜보고 재개시기 정할 예정
다만 금융당국의 눈치보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월별, 분기별 대출 한도를 최대한 안배하려는 모습... 또한 금리인상도 계속해서 예고되며 대출한파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

보험사 빅테크 대항 다이렉트 채널 고도화·디지털 상품 출시

한국금융신문

보험사들, 빅테크에 대항할 다이렉트 채널 고도화에 골몰... 삼성화재, 다양한 디지털 상품 선보이는 중... KB손보는 MZ세대 트렌드 반영한 미니암보험 플랜 제공
빅테크와 협업을 통해 디지털 시장 선점하려는 시도도 존재... 삼성생명, 토스와 협업... 메리츠화재, 카카오페이와 손잡고 1월 출시 목표 소액보험 상품 개발 중

미래에셋·삼성·한투증권...증권사 퇴직연금 핫하네

디지털타임스

증권사들, 퇴직연금 시장에서 약진하며 은행 중심 퇴직연금 시장 흔들어... 미래에셋, DC형 시장에서 하나은행 제치고 3위, IRP 시장에서는 우리은행 제치고 4위로 상승
월등한 운용 수익률이 작용해... DC형 최근 1년간 수익률은 5.77%로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1위 차지... 증권사들의 DC형 수익률 상위권 독식 중

금감원, 증권사 9곳 과징금 480억 전면취소 안할듯

동아일보

금감원, 최근 끝낸 한국거래소 종합검사에서 시장조성자 제도의 직접적인 결함을 찾지 못해... 480억 원의 과징금을 전면 취소하기 어려워져...
향후 과징금 부과안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다만 동 위원회에서 과징금 경감 및 전면 취소될 가능성 유력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